

## **[Concert Review] Stradivari Quartett & Seung-Yeun Huh**

Last 27<sup>th</sup> April at the Seoul Arts Center, Stradivari Quartett and Seung-Yeun Huh gave a recital. The stage on which Mozart String Quartet No.21, Barber Adagio for Strings, and Schumann Piano Quintet rang out warmed the cockles of the audience's hearts in the season they drifted into the deep inside of spring.

Particularly, the chamber music played on Stradivari, known as the world's top 3 exquisite string instruments along with Amati and Guarneri, pleased the ears of the audience. The Stradivari Quartett is a string quartet founded with support from the Habisreutiger, a foundation that presides over the exhibition of Stradivarius instruments. The foundation loans out Stradivarius instruments to the members carefully selected. The level of their musicality and technique is high enough to satisfy the exacting eyes and ears of the foundation.

Mozart String Quartet No.21 filled in the stage with the fascination of Mozart's, Classic's, and the strings' own. The balance between the tightly constructed notes was completed through the perfect harmony between the four members. The tone of an intricate web of strings was wrapped with warmth so that it could comfort the audience's ears. The refined stream of Mozart's piece which was smoothly contoured with no bump resulted from the profound musicianship, virtuosity, and excellent ensemble of the members.

The deep tone of strings overclouded with a sorrow stood out in Barber Adagio for Strings. The performance pictured the whole image of the piece already in the introduction. Though still in silence, the stage seemed to indicate a certain direction of the flow as slowly heightening the emotion. Again, the four musicians worked in perfect harmony so that they sounded like one.

A Korean pianist, Seung-Yeun Huh's special presence graced the stage in Schumann Piano Quartet Op.44. Schumann's bright music was created with the best beauty that the voice of each instrument can make. It was impressive that the balance between them seemed to have been built up for many years.

This stage was telling me not only how special concertos and solo pieces are, but also how precious chamber music is. I could see again how much work should be required for the musicians of different musicality to play the same music on the same stage with the instruments of different sound.

[By Miyeun Joo, editor\_Artsmconcert]

URL: <http://artmconcert.com/220695909922>

## [공연 리뷰] 스트라디바리 콰르텟 & 허승연

지난 4월 27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스트라디바리 콰르텟과 허승연의 리사이틀이 열렸다. 모차르트와 현악 4중주 21번,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슈만의 피아노 5중주로 올려 퍼진 이날의 무대는 어느덧 봄의 깊숙한 곳에 들어온 관객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었다.

특히 아마티, 가르네리와 함께 '세계 3대 현악 명기'로 유명한 스트라디바리로 듣는 실내악곡들은 관객들의 귀를 더욱 즐겁게 해주었다. 스트라디바리 콰르텟은 정기적으로 스트라디바리 악기 전시회를 주재하는 하비스로이팅거 재단의 후원으로 결성된 현악 4중주단으로써 특히 재단이 엄선한 현악주자들에게 재단이 보유한 악기를 대여하여 창단 멤버가 꾸러졌다. 재단 측에서 엄격한 눈과 귀에 맞는 멤버들로 꾸러진 만큼 그들의 음악성과 기교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21번은 모차르트와 고전, 그리고 현악기가 가진 독자적인 매력이 가득 품어진 무대였다. 밀도 있게 짜인 음들 간의 균형은 네 명의 주자들의 탁월한 호흡으로 완성되었다. 얽히고설킨 현악기의 음색은 따뜻함으로 포장되어 관객들의 귀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굴곡 없이 매끈하게 연결된 듯 한 모차르트 음악의 유려한 흐름은 네 명의 주자들의 깊은 음악성과 기교성, 그리고 탁월한 앙상블의 결과 물이었을 것 이다.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우수에 찬 깊은 현의 음색이 돋보였다. 도입부부터 이미 곡 전체의 분위기를 관객들에게 그려주며 무대가 시작되었다. 천천히 감정을 고조시켜가 듯, 정적이지만 어디론 가의 분명한 흐름을 제시하는 듯 한 무대였다. 역시 4명의 주자의 하나 된 듯 한 호흡이 돋

슈만의 피아노 4중주 Op. 44는 특별히 국내 피아니스트인 허승연이 함께 하여 그 무대를 더욱 빛내주었다. 슈만의 영롱한 음악은 무대 위 연주자들이 가진 각자의 악기의 음색이 낼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움으로 빛어졌다. 이들의 호흡은 마치 수년간 함께해온 듯, 인상적 이었다.

협주곡, 독주곡이 갖는 특별함도 빛나지만 실내악곡이 갖는 그 특별함도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알려준 무대였다. 각기 다른 음악성을 가진 연주자들과 다른 음색을 가진 악기들이 한 무대에서,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요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아트엠콘서트\_에디터 주미연]